

IT산업 수출입동향

4월 IT수출이 전년 동월대비 19.5% 감소한 94.7억 달러로, 잠정 집계됨. 글로벌 경기 불황이라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IT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감소율이 호전되고 있으며, '08.11월 이후 처음으로 90억 달러 대에 진입하는 등 4개월 연속 증가세

* 월별 IT수출액(억달러):('08.12)65.1 →

(09.1)69.2 → (2)76.9 → (3)87.9 → (4)94.7

IT수입은 전자부품 31.1억 달러, 컴퓨터 및 주변기기 6.3억 달러 등 주요 품목의 수입 감소로 전년 동월대비 25.2% 감소한 50.8억 달러이며, IT 무역수지는 43.9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글로벌 경기 침체지속과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어려움이 예상되나, 국내 IT업체의 우수한 제품 기술력 및 가격경쟁력, 미국 여름방학(5~6월) 이후 Back-to-school 수요가 예상되어 수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될 전망

1] 휴대폰(부분품 포함) : 24.4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 대비 18.4% 감소

- 글로벌 경기둔화로 전세계 휴대폰 시장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5.8%의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업체는 전년 동기에 버금가는 실적(출하량 기준)을 기록하며 점유율 확대가 예상

• 다만, 휴대폰 수출은 전년 동월의 고성장(43.0%)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동월대비 18.4% 감소했으나 전월대비 2.0% 증가

- (지역별) 對미국(8.3억 달러, 0.6%) 휴대폰 수출은 경쟁사의 부진 및 환율 효과와 터치폰의 선전으로 증가한 반면, 對EU(4.5억 달러, △37.3%) 및 對일본(0.4억 달러, △21.4%) 수출은 부진하였고, 부분품 중심인 對중국(홍콩 포함, 6.9억 달러, △12.1%) 수출은 감소율이 완화

- 중동(0.5억 달러, 4.6%) 수출은 증가한 반면, 중남미(1.1억 달러, △40.4%), 동유럽(0.7억 달러, △40.9%), 아프리카(0.2억 달러, △9.3%)등은 부진

【 휴대폰(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

(단위 : 억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08.4	5	6	7	8	9	10	11	12	'09.1	2	3	4
금액	29.9	28.0	27.1	29.5	27.8	32.5	37.6	24.0	16.3	21.9	23.7	23.9	24.4
(증감률)	(43.0)	(38.1)	(20.2)	(21.8)	(20.2)	(39.6)	(13.6)	(△25.5)	(△17.4)	(△21.7)	(1.5)	(△21.3)	(△18.4)

2] 반도체 : 21.1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26.2% 감소

- D램은 업계의 감산과 구조 조정으로 단가는 개선되었으나, PC 시장의 수요 회복 지연으로 전년 동월대비 37.4% 감소한 5.3억 달러

【 반도체 수출 추이 】

(단위 : 억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08.4	5	6	7	8	9	10	11	12	'09.1	2	3	4
반도체	28.6	30.9	32.7	32.0	31.0	29.4	25.2	19.4	15.3	15.0	15.4	18.1	21.1
	(△0.1)	(5.6)	(2.3)	(△5.9)	(△12.9)	(△10.5)	(△26.1)	(△44.1)	(△49.9)	(△46.9)	(△40.6)	(△38.4)	(△26.2)
메모리	15.7	17.1	17.5	17.3	16.8	14.5	11.4	9.1	7.3	7.2	7.9	8.7	9.8
	(△2.4)	(3.6)	(△6.0)	(△13.0)	(△21.0)	(△24.2)	(△39.5)	(△50.3)	(△53.8)	(△48.9)	(△42.3)	(△45.2)	(△37.5)
D램	8.5	9.6	10.4	10.8	10.9	8.5	6.2	5.1	4.8	4.4	4.4	5.0	5.3
	(△12.1)	(4.6)	(6.2)	(1.9)	(△2.0)	(△8.0)	(△23.8)	(△31.7)	(△29.4)	(△36.8)	(△38.4)	(△41.2)	(△37.4)
낸드	2.3	2.5	2.4	2.3	2.0	1.7	1.3	1.1	0.8	1.0	1.1	1.3	1.4
	(31.4)	(19.9)	(△15.1)	(△26.4)	(△47.8)	(△47.3)	(△56.0)	(△66.4)	(△76.5)	(△65.4)	(△60.2)	(△42.5)	(△37.6)

* 메모리반도체에 메모리 MCP 포함

- 한편, 낸드플래시는 하이닉스, 도시바 등 주요 업체의 보수적 가동률 운영으로 가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스마트폰, SSD, 메모리카드 등 전방 산업의 본격적인 수요 견인이 이뤄지지 않아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37.6% 감소한 1.4억 달러 기록, '08.6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
- (지역별) 중국(홍콩포함, 9.5억 달러, Δ19.9%), 미국(1.4억 달러, Δ44.7%), EU(1.3억 달러, Δ33.1%)은 감소한 반면, 일본(2.9억 달러, 0.5%)은 증가

㉓ 패널(부분품 포함) : 20.3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8.5% 감소

- 패널은 패널 가격 안정과 세트업체들의 재고 확보에 따른 수요 회복으로 수출 감소율이 크게 완화
 - * LCD 가격(TV용 Full HD, 42인치, 달러) : ('08.12) 327.5 → ('09.1) 325 → (2) 325 → (3) 323 → (4) 320
- (지역별) 중국(홍콩포함, Δ4.8%), 브라질(Δ53.2%)은 감소했으나, 멕시코(1.7%) 및 폴란드(24.9%) 등 일부 주요 생산거점 수출은 증가로 전환

【 패널 수출 추이 】

(단위 : 억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08.4	5	6	7	8	9	10	11	12	'09.1	2	3	4
금액	222	228	216	238	236	25.3	24.1	18.5	12.3	12.4	15.0	19.4	20.3
(증감률)	(49.0)	(34.1)	(39.7)	(31.3)	(15.4)	(27.4)	(3.6)	(Δ18.6)	(Δ41.2)	(Δ40.8)	(Δ24.1)	(Δ12.7)	(Δ8.5)

㉔ 칼라 TV(부분품 포함) : 4.8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17.5% 감소

- TV 가격이 상승세로 반전되었고 해외생산을 위한 TV 부분품(4.1억 달러, Δ16.5%)을 중심으로 수출 감소가 완화

* LCDTV가격(42인치, 달러) : ('08.11)1,100 → (12)1,042 → ('09.1)1,033 → (2)1,007 → (3)926 → (4)961

- (지역별) 중국(홍콩포함, Δ63.4%), 멕시코(Δ2.5%)는 감소했으나, 폴란드(12.8%), 헝가리(29.4%), 인도(26.2%) 등은 일부 생산 거점 수출은 증가세로 전환

【 칼라TV(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

(단위 : 억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08.4	5	6	7	8	9	10	11	12	'09.1	2	3	4
칼라TV	5.9	5.3	5.3	5.5	4.9	5.5	4.4	2.3	2.1	2.8	3.4	4.4	4.8
(부분품 포함)	(27.0)	(32.5)	(34.7)	(13.1)	(Δ20.9)	(1.5)	(Δ36.9)	(Δ59.9)	(Δ60.4)	(Δ48.4)	(Δ38.5)	(Δ28.4)	(Δ17.5)
LCD TV	0.6	0.7	0.5	0.7	0.5	0.6	0.5	0.5	0.3	0.3	0.3	0.4	0.4
	(25.9)	(58.7)	(7.1)	(27.3)	(Δ23.7)	(23.4)	(Δ24.9)	(Δ9.8)	(Δ47.2)	(Δ46.9)	(Δ33.3)	(Δ37.1)	(Δ29.3)
PDP TV	0.3	0.3	0.4	0.3	0.3	0.3	0.3	0.2	0.2	0.2	0.2	0.2	0.2
	(44.4)	(61.9)	(40.2)	(15.7)	(Δ25.4)	(Δ6.8)	(Δ34.7)	(Δ48.4)	(Δ39.6)	(Δ25.9)	(Δ20.7)	(Δ34.2)	(Δ13.0)
TV 부분품	5.0	4.3	4.4	4.4	4.1	4.5	3.6	1.7	1.5	2.4	2.9	3.7	4.1
	(28.6)	(30.6)	(41.3)	(12.1)	(Δ19.6)	(0.6)	(Δ38.9)	(Δ66.0)	(Δ64.4)	(Δ49.5)	(Δ39.9)	(Δ27.2)	(Δ16.5)

㉕ 기타

- 프린터(0.8억 달러, Δ4.8%), HDD(1.1억 달러, Δ28.7%)

등의 수출 감소율이 완화되었고, 셋톱박스(0.6억 달러, 37.7%)는 선전